

민주, 또다시 광주시장·전남지사 ‘전략공천설’ 술렁

현역 출마자제·당원명부 유출 분란 명분 검토 “지역주민 의사 반영하는 ‘공정한 경선’ 치러야”

6·13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전략공천설이 나돌면서 지역정계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관련기사 4면> 특히 당원명부 유출 등 광주시장 경선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다 전남지사의 경우 중앙당의 요청으로 결국 이개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선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12일 지역정계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에서 광주시장에 양향자 최고위원을, 전남지사엔 김영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전략공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각 예비후보 캠프에서는 진위여부를 파악하느라 중앙당에 전화문의하는 등 파문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전략공천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당사자인 양향자 최고위원도 최근 거론되고 있는 ‘전략공천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선언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광주는 전략공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만큼 정당당한

경선을 원하고 있으며, 낡은 기록권을 시민이 심판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당당당하게 이겨야만 시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준비해온 경선주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선 광주시장 예비후보들은 전략공천은 당을 분열시키고, 지역민심이 등을 돌리는 등 민주당이 또다시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총선당시 지역정서에 맞지도 않는 후보를 줄기차게 찍으라고 전략공천을 했던 상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다. 모 캠프 한 관계자는 “지난 총선의 참패를 망각한 채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만 믿고 또다시 오만에 빠졌다”며 “폐단을 잘 알면서도 전략공천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는 건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이다”고 맹비난했다. 전략공천이 확정될 경우 출마예정자들의 거센 반발 등 후폭풍도 예상된다. 시민들의 비난과 맞물려 지역민심의 기류변화가 이어지면서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지사 출마를 준비해왔던 이개호 의원이 현역의원 차출에 부정적인 당의 입장을 고려해 출마를 접었다.

민주당은 그 동안 이 의원에게 전남지사 출마자제를 요청해 왔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기호 1번을 유지하고 나아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유리하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원내 1당 지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에 지도부가 나서 설득했다. 이와 연관돼 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의 전남지사 전략공천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6·13지방선거전 전남지사 후보경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관련, “전남도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고, 국무위원으로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전남지사 한 캠프 관계자는 “사실여부를 떠나 생각해볼 수도 없으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출마예정자들의 거센 반발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며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전남 시·도지사 선거가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광주·전남 시·도지사를 전략공천할 경우 사상 최고의 당 지지율과 문 대통령에 대한 무한지지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경고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광주세계수영대회 실시 12일 오후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 국제수영연맹(FINA) 코넬 마르클레스쿠 사무총장 일행이 염주수영장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김태규 기자

광주시, 국내외 자동차 기업 투자유치 본격화 “500억 이상 투자하면 10% 보조금 지원 인센티브”

광주시가 미래 친환경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유치에 나섰다. 광주시는 12일 빛그린산업 입주 가능 기업의 유형을 관련업체들에게 ‘500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액 대비 최대 10%의 투자유치 보조금을 주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투자유치 및 인센티브 제시는 지난달 7일 국내외 자동차 관련 기업인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린 ‘투자유치 설명회’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앞서 시는 자동차 전용산업인 빛그린산단에 123만평을 조성하고,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사업으로 R&D 예산 3,030억원 확보했다. 여기에 지난 7일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광주 노사민정 결의문’까지 채택돼 이를 발판으로 투자유

형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기업유치 활동을 보다 본격적으로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기반으로 노사상생 문화를 정착시키고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광주시의 투자유치는 기업에게 막연히 투자를 권유하는 것을 뛰어넘어 기업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유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투자유치 대상은 완성차와 부품 생산 기업을 망라하며, 완성차 제조방식도 기업이 소재와 부품을 생산·조립해 완제품을 ‘직접생산’ 방식에서부터 기업간 ‘위·수탁 모델’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투자방식도 1개 기업이 단독투자

하는 경우와 2개 기업 이상이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공동투자는 물론 한발 더 나아가 법인지속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투자하는 ‘합작투자’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부터 국내외 자동차기업을 대상으로 개별방문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광주시는 앞으로 이같은 투자유치를 집중 홍보함은 물론 ‘노사민정 결의문’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유정현 광주시장은 “123만평 규모의 빛그린국가산단(자동차전용산단)에 오는 2021년까지 3,030억원의 정책예산이 투입되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어 기업들이 투자에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본다”면서 “투자유치 제시를 통해 투자유망 기업들이 실무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겠다”고 밝혔다. /강성수 기자

이개호 의원, 전남지사 불출마 선언 “국정 성공·지방선거 승리 위해 매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2일 ‘6·13지방선거’의 전남지사 당내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전남도지사직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정의 성공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

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주도권을 보수야당에게 넘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그 동안 성원해주신 전남도민들과 함께 해주시 지지자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저를 통해서 새로운 전남을 꿈꾸셨던 전남도민들



께 거듭 죄송하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 승리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지사 선거 유력주자로 거론돼 왔던 이 의원에게 대해 민주당은 그동안 원내 1당 유지 등을 이유로 출마를 만류해 왔다. /서울=강병은 기자

「2018영암 방문의 해, 일출산 국립공원 지정 30주년」

2018 영암왕인문화축제

2018. 4. 5 목 ~ 4. 8 일 / 4일간 왕인박사유적지 일원

4.5 (목)	4.7 (토)
10:00 - 12:00 왕인박사 총향제 (왕인사당)	10:00 - 10:30 삼호년타공연 (주무대)
12:30 - 13:30 왕인어린이 재물잔치 (주무대)	10:00 - 16:00 제4회 천자문·경전 성독대회 (주무대)
13:30 - 14:00氣 발한 매직쇼 (주무대)	10:30 - 11:30 태권도&기예무단 공연 (주무대)
14:00 - 17:00 왕인박사 학술 강연회 (영월관2층)	11:30 - 12:00 보부상 경매쇼 (주무대)
14:30 - 16:30 남주골 어울마당 (주무대)	12:00 - 13:00 미니퍼레이드 왕인행차 (축제장 일원)
18:00 - 18:30 왕인's 아리아 (주무대)	12:00 - 14:30 백제 차문화 시연회&토크콘서트 (주무대)
18:30 - 19:00 개막행사 '왕인의 빛! 세계로!' (주무대)	14:30 - 15:00 삼호 대동 강강술래 (주무대)
19:00 - 21:00 개막축하방송(MBC) (주무대)	15:00 - 16:30氣운선 장사 페스티벌 (너른마당)
	16:30 - 18:30 왕인청소년 페스티벌 (주무대)
	18:30 - 19:00 보부상 경매쇼 (주무대)
	19:00 - 21:00 KBS 라이브 뮤직쇼 (주무대)

4.6 (금)	4.8 (일)
10:00 - 12:00 왕인학생 예술대회 (축제장 일원)	10:00 - 12:00 구림 벚꽃길 걷기대회 (주무대-구림마을)
12:00 - 13:00 미니퍼레이드 왕인행차 (축제장 일원)	11:00 - 12:00 도포제 줄다리기 (주무대)
12:00 - 14:00 왕인박사 추모 한시백일장 (주무대)	12:30 - 13:00 보부상 경매쇼 (주무대)
14:30 - 15:30 갈꿈들소리 (주무대)	13:00 - 13:30 히어로 뮤직 갈라쇼 (주무대)
15:30 - 17:30 영암 화전놀이 「氣찬골 잔치날」 (너른마당)	14:00 - 15:30 왕인박사 일본가요 퍼레이드 (주무대-성대포)
17:30 - 18:00 4월애 벚꽃프리퍼즈 (주무대)	14:30 - 15:10 평양민속예술단 공연 (주무대)
18:30 - 19:00 힐링 팡페라 공연 (주무대)	15:10 - 16:00 왕인 전통연희단 공연 (주무대)
19:00 - 20:30 드림콘서트 with 이승환 (주무대)	16:30 - 17:00 4월애 벚꽃프리퍼즈 (주무대)
	17:30 - 18:00 드림싱어즈 오페라 공연 (주무대)
	18:00 - 18:30 폐막행사 '영암의 빛! 미래로!' (주무대)
	18:30 - 20:30 구림의 밤(J호남방송) (주무대)